



매달 한입, 안전이 쌓여요!

# 안전 한입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이 달의 안전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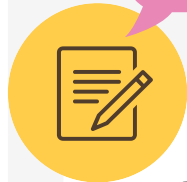
안전은 규정으로 시작되지만,  
문화가 되어야 오래 갑니다



Chapter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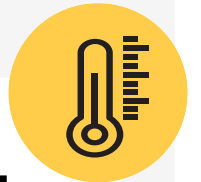
# 정책 · 제도 동향

뉴스 바로가기 클릭



##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안전보건공시 대상 구체화 ... 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

위험성평가 미이행 과태료 기준과 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 의무, 반복 재해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제도가 형식적 운영을 넘어서 실제 이행과 개선조치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구체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올여름 '38도' 폭염 오면 '중대경보' ... '잠시 멈춤'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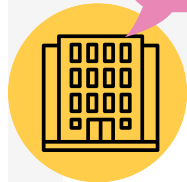
올여름부터 기존 폭염주의보·경보에 더해 '중대경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고온 자체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작업 보호조치와 작업중지 판단까지 실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제도 운영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Chapter 01. 🔍

## 정책 · 제도 동향

뉴스 바로가기 클릭



### 중대재해 땐 공공기관장 해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 "중대재해는 비정상" ... 7대 구조개혁 과제 포함

대통령이 중대재해를 마약 범죄·주가조작 등과 함께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7대 비정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정책 회의에서 중대재해를 국가 관리 대상 구조적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 산업안전 & 재해뉴스

01

## '74명 사상자' 대전 안전공업, 위험성평가 점수 '평균 이상' 이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기존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증기·분진·휴게실 등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개선이 보호구 권고 수준에 머문 만큼, 보건상 위험을 곧바로 화재·폭발 위험과 연결해 추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기준을 충족했으니 괜찮다"고 넘어간 점검 항목 중,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곳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02

## 광양 한화오션에코텍 안전사고 40대 하청 노동자 참변

광양 제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로 4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부 업체나 협력 인력이 작업할 때, 그분들의 안전까지 우리가 챙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산업안전 & 재해뉴스

03

## TK 지역 주말·휴일 사망사고 77% 관리책임자 부재 중 발생

대구·경북 지역 산업현장 주말·휴일 사망사고의 77%가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2년간 22건의 주말 사고 중 17건이 관리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휴일에 우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관리책임자가 없어도 놓치지 않고 챙겨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04

## 건설업 연간 사망자 사상 첫 200명 아래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안전 노력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나요?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다면,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 기술 · 도입 사례

뉴스 바로가기 클릭



에스알, 'AI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강화



행안부, 소규모 음식점 'AI 자율점검' 도입...안전 사각지대 해소



AI가 도로안전·주거환경 관리...정부, 750억원 투자

이 달의 홍보

## 2분기 아차사고 신고 창구 운영

혹시 이런 일 있으셨나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찔했던 순간"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차사고 제보를 기다립니다!

신고 기간 : 4~6월 / 신고처 : [kuj120@dj.pass.or.kr](mailto:kuj120@dj.pass.or.kr) / 문의 : 내선 8987

끝! 오늘도  
안전 누리슈~

